

신중년 기혼여성의 만성질환 친정모 돌봄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이 지 수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가족상담 · 치료학과)

조 은 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본 연구는 신중년 기혼여성의 만성질환 친정모 돌봄 경험을 원가족 경험과 코호트 경험에 주안점을 두고 내러티브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독특성과 맥락성, 시공간성이 중시되는 내러티브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만성질환 친정모 돌봄의 일차적 책임 역할을 하고 있는 3명의 중년 기혼여성이었으며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참여자당 3~4회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과 분석 절차는 Clandinin과 Connelly(2007)의 지침을 따랐다.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분석 결과는 신중년 여성들의 원가족 경험과 코호트 경험이 질환을 가진 친정모 돌봄의 다양한 측면에서 자원 혹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은 친정모를 돌보는 딸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적극적 의미부여를 해나감으로써 현실에 대처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부모 돌봄을 경험하는 가족을 위한 임상적 개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신중년 여성, 노인 돌봄, 딸, 만성질환, 내러티브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조은숙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03016) 서울 종로구 홍지동 7-1 / Tel : 02-781-7782 /

E-mail: grace123@smu.ac.kr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부모 돌봄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자 가족 스트레스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노부모 돌봄은 유교적 전통과 농경문화의 영향으로 가족 돌봄 형태로서 자녀들의 노부모 돌봄이 당연한 책임과 의무로 여겨졌다(이현지, 2007). 그러나 전통적 효 의식의 해체와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저출산, 핵가족화 등은 가족의 노부모 돌봄 형태에 변화를 가져왔다(이원준, 신성자, 2011; 통계청, 2017). 노인들의 장남을 포함한 아들과의 동거 비율은 1998년 52.1%에서 2018년 19.3%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노부부 단독가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9). 반면 같은 기간 딸의 노부모와 동거 비율은 증가되는 추세이다(통계청, 2019). 이러한 제반 변화들은 딸의 노부모 돌봄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대두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중년’¹⁾이라는 정책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중년이란 2021년 현재만 50~69세의 코호트를 지칭하며(고용노동부, 2021) 과거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부장적 규범과 오늘날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혼재된 코호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돌봄 측면에서 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

감과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동시에 가진 처음이자 마지막 세대이다(최유나, 2018). 특히 신중년 여성은 가부장적 규범의 희생자이자 생존자로 성장하였으나 노부모 돌봄에 있어서는 아들·딸·며느리의 구분이 희미해진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노부모 돌봄이 이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역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박중환, 신승옥, 2018).

노부모 돌봄자로서의 딸의 중요성은 돌봄 역할에 부여된 젠더화된 관점과 약화된 부계 가족 규범이 교차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누가 노부모를 보살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상대적으로 강하며(이금남, 2001) 남성인 아들보다 돌봄 역할에 숙련된 여성으로서의 딸(최희경, 2012)의 돌봄 역할이 부각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딸의 노부모 돌봄은 역할 자체의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더하여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딸의 노부모 돌봄 역할은 아들이나 며느리에 비해 여전히 역할의 규범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으며(통계청, 2019),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더 많은 딸이 부모와의 갈등도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여봉, 2011), 받은 만큼 돌려드린다는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해 보았을 때 아들에 비해 부당함을 느낄 수 있는 딸의 입장(최희진, 한경혜, 2017), 그리고 아들 아닌 딸에게 부모 돌봄의 책임이 오게 되는 맥락에서 유추될 수 있는 형제들의 협력 부재 가능성(박중환, 신승옥, 2018) 등의 측면에서 딸은 노부모 돌봄에서보다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은 딸들이 돌봄 역할에 대한 스스로의 의미부여와 의존적인 부모와의 관계 재정립, 자기 삶에 대한 조망 변화 등의 내적

1) ‘신중년’이라는 개념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에서 처음 사용한 신조어로서(고용노동부, 2017), 현재 만 50~69세가 이에 해당하며(고용노동부, 2021) ‘2차 베이비부머 세대’, ‘50 60세대’, ‘끼인 세대’, ‘샌드위치 세대’, ‘빈 등지시기’ 등의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즉 ‘신중년’은 하나의 정책적 용어로서 반 따옴표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나 편의상 이후 본문에서는 반 따옴표를 생략하기로 한다.

경험 등을 통해 돌봄의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선숙, 2019; 박종환, 신승옥, 2018; 박진숙, 2019; 이동옥, 2011).

이와 같은 딸의 노부모 돌봄 경험의 다면적 양상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소수이지만 이루어지고 있다(김선숙, 2019; 김영하, 2021; 박종환, 신승옥, 2018; 박진숙, 2019; 최유나, 2018). 그러나 이들 연구는 비혼 딸의 부모 돌봄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으며 기혼 딸이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경우(김영하, 2021; 박종환, 신승옥, 2018; 최유나, 2018)는 많지 않았다. 본인의 생식가족에 대한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에 더하여 친정모에 대한 돌봄을 해야 하는 기혼 딸의 돌봄은 역할과중이나 역할 간의 갈등 문제, 출가외인이라는 전통 규범의 위배라는 측면에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혼 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아쉬운 상황이다. 최유나(2018)는 기혼 딸의 경험에만 초점을 둔 드문 연구인데 돌봄의 책임이 더 클 것으로 여겨진 장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돌봄 주체가 선택되는 과정은 규범적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맥락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문현아, 차승은, 2020; 박종환, 신승옥, 2018), 이런 점에서 장녀 이외의 딸들이 돌봄 주체가 되는 경우도 함께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부모 돌봄 스트레스는 부모가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호혜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와 수발이 필요한 질환이 있는 경우가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기 기혼여성이 만성질환을 가진 노부모를 돌보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과중과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돌봄 당사자들의 경험을 기혼 딸들의 코호트 경험과 엮어진 원가족 성장 경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역사와 시공간의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노부모 돌봄 경험이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경험되며 의미부여 되고 있는지를 시공간의 맥락 하에서 탐구해 보고자 한다. 부모 돌봄은 가족의 역사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나(최유나, 2018)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둔 연구는 별로 없다. 가족 내 개인의 경험은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데, 이런 점에서 신중년 코호트의 역사적·사회적 경험은 이들의 가족생활 경험에 녹아들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arter와 McGoldrick(2000)의 가족스트레스의 다세대적 관점을 자료 이해의 틀로 삼고자 한다.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다세대적 관점은 현 시점의 스트레스에 관여하는 다세대적 스트레스와 당대에 발생한 발달적·비발달적 스트레스 간의 교차성에 주목하여 가족스트레스를 이해하는 통시적이면서도 발달적인 관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 관점은 친정모 돌봄을 하는 기혼여성들의 원가족 경험, 성장 배경, 교육 경험, 직업 경험, 기혼형제자매관계 등 사회적·가족적 맥락이 현재의 돌봄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의 역사적 맥락 속의 경험과 코호트적 맥락 안에서의 경험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신중년 딸의 친정모 돌봄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주는지를 그들의 삶의 궤적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신중년의 노부모 돌봄 경험과 의미를 통해, 변화되어 가는 한국 가족의 한 단면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험에 대한 상호적 내러티브를 통해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연구 방법은 신중년 기혼여성 개인과 가족역사의 독특성을 드러내며,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부모 돌봄의 주체가 된 맥락과 현재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이 행동 주체로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생생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Clandinin, 2013)이다.

주 연구자의 아버지는 연구자의 유년 시절부터 크고 작은 수술로 오랜 시간 병상에 계셨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는 노점상을 비롯한 온갖 험한 일들을 하셨다. 힘겨운 삶의 무게 때문인지 어머니는 40대에 당뇨병을 얻었고, 10년 전부터는 심각한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거의 상실되어 주위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2년 전에는 파킨슨 판정을, 1년 전에는 심부전으로 위독한 상황이었고, 6개월 전에는 위암 판정을 받았다. 증세가 심각하여 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가족들의 돌봄을 받고 있다. 어머니는 현재 아버지, 미혼인 언니와 동거하며 가족의 돌봄을 받고 계시다. 연구자는 친정 근처에 살면서 수시로 어머니를 돌보아 드리고 있다. 그러나 기혼자로서 직장생활과 나의 가족을 돌보며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것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점점 병세가 나빠지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죄책감에 짓눌리기도 하였다.

기혼여성으로서 친정 부모를 돌보면서 느낀 연구자의 부담과 한계라는 개인적 경험이 출발점이 되어 다른 중년 기혼여성들이 만성질환 친정모를 돌보는 경험은 어떠한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경험과 의미를 통

해 나의 현실을 극복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다. 부와 모에 대한 돌봄의 속성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연구참여자를 보다 특정화하기 위해 연구는 친정모를 돌보는 경우로만 한정하기로 하였다. 연구자가 가진 구체적인 연구 퍼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 딸의 만성질환 친정모 돌봄의 맥락이 되는 성인기 이전의 성장과 독립과정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기혼 딸의 만성질환 친정모 돌봄 역할 수용과정의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기혼 딸은 만성질환 친정모 돌봄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신중년 여성의 노부모 돌봄 경험

1) 노부모 돌봄 관련 한국가족의 변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가부장주의’, ‘효’ 사상에 대한 지지의 약화는(양옥경, 2002) 한국인들의 노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녀보다는 고령 배우자에 의한 돌봄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부모 돌봄을 자녀 공동책임 혹은 능력 있는 자녀의 책임으로 보는 추세가 지배적이다(통계청, 2017; 통계청, 2019).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노부모 돌봄이라는 가족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역할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가족원 누군가에게 돌봄 책임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경우, 가족체계가 붕괴하는 등의 위기상황에 봉착하기도 한다(김영하, 2021). 노부모 돌봄이 어떠한 가족적 맥락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돌봄 당사

자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및 스트레스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신중년 여성의 코호트 특성과 노부모 돌봄

신중년은 2021년 현재 50세~69세로, 195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초반에 주로 출생한 코호트로서 신중년 인구는 2026년 총인구의 3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용노동부, 2021). 이들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며, 이중 돌봄의 마지막 세대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용노동부, 2017; 진화영, 2020). 신중년 여성은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기회의 확대로 학력이 신장하였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전통적 가족주의가 약한 반면 개인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변화에 적극적이고, 매우 실리 지향적인 특성을 가진 세대로 평가된다(최은영, 2015). 그러나 이들의 성장기는 한국의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강하였기 때문에 신중년 여성에게는 전통과 혁신의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어, 이들은 전통적 부모 돌봄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려는 첫 세대로,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 돌봄 부담을 겪고 있다(양지훈, 권미애, 2018). 현재 신중년의 부모 평균 연령은 80대 초반으로 대부분의 부모가 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신중년들의 이와 같은 혼재된 가치관은 노부모 돌봄으로 인한 신중년 여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3) 노부모 돌봄 주체로서 딸의 등장

신중년 여성들의 결혼 시기(주로 1980~90년대)에는 이미 핵가족화로 딸과 친정 부모와

의 만남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로 친정 부모가 딸의 자녀 양육 및 살림을 돕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신중년 여성들의 경우 딸과 친정 부모의 상호의존도와 딸의 친정 부모 돌봄 의무감이 이전 세대에 비해 높아지게 되었다(이원준, 신성자, 2011; 차성란, 2014).

돌봄 주체로서의 딸은 규범적 돌봄 주체로 여겨지는 아들/며느리에 의한 돌봄(양옥경, 2002)과 달리 친밀감에 기초한 돌봄 경향을 강하게 가진다(김윤정, 최유호, 2007; 이금남, 2001). 또한, 딸은 아내나 며느리 돌봄의 경우와 달리 자녀를 위해 희생한 친정모의 생활태도를 내면화하여 노부모 돌봄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 돌봄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각하는 경향도 보였다(김영하, 2021). 노부모 입장에서라도 상대적으로 친밀감이 높은 딸과 동거 시 비교적 갈등이 적고 편안함을 느껴(서병숙, 장선주, 1990) 딸에 의한 노부모 돌봄의 중요성을 더해준다.

하지만 노모와 중년의 딸은 여성이라는 동일성에 의한 정서적 유대감이 높은 반면 여성이라는 공통점에서 기인된 갈등 또한 높아 잠재적 갈등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노모는 자신이 딸을 낳았다는 무의식적 인식에서 딸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여기며 동일시하게 되는 반면 중년의 딸은 노모와 분리되어 독립된 개체로 인식되고 싶어 하는 인식의 차이가 상호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류민영, 2016).

딸의 부모 돌봄 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딸의 소득이 높은 경우, 싱글보다는 기혼의 경우, 또 부모와 친밀감이 높은 경우에 돌봄 의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다영, 2004; 이금남, 2001; 전해성, 2016). 즉, 자신이 부모를 모실만한 형편이 된다는 점, 그리고

부모에 대한 친밀감과 애정을 느끼고 있는 딸들은 친정부모를 돌보고자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금남, 2001; 황은경, 2016)이다. 그러나 비혼 딸들은 부모 돌봄으로 인해 독신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며 돌볼 자기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형제들에 의해 부모 돌봄이 떠맡겨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됨(김선숙, 2019; 박진숙, 2019)으로 인해 자발적 부양 의식은 기혼 딸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다.

딸들도 친정 부모 돌봄으로 인한 육체적 불편과 불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딸은 원가족의 다양한 맥락을 바탕으로 자신이 친정모와 형제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을 느끼며(최유나, 2018) 이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돌봄을 할 경우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만큼 노부모 돌봄에 대한 애착과 책임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종환, 신승옥,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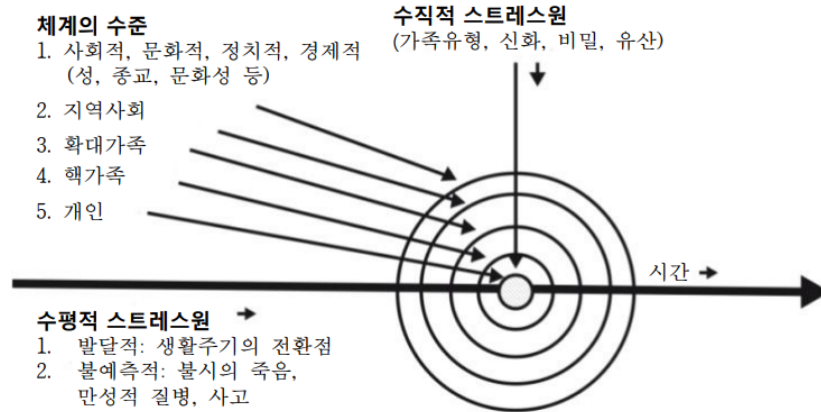
심층 면접이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중년기 여성의 친부모 돌봄 경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시작된 돌봄, 돌봄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현실적 한계 경험, 돌봄 경험을 통하여 노부모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재정립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미래 삶에 대한 조망을 하게 된다는 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김선숙, 2019; 박종환, 신승옥, 2018; 박진숙, 2019; 최유나, 2018).

2. 노부모 돌봄 문제에 대한 다세대적 관점

본 연구에서는 기혼 중년여성의 친정모 돌봄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보고, 이를 Carter와 McGoldrick이 정립한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다

세대적 관점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Carter와 McGoldrick은 M. Bowen의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을 여성주의적 관점 및 문화적 차이와 가족의 다양성을 접목시켜 발전시켜온 학자들이다(이영분, 김유숙, 신영화, 전해성, 최선령, 2020). Carter와 McGoldrick(1980)은 체계변화론에 입각하여,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수직적(세대 간) 스트레스원’과 ‘수평적(세대 내) 스트레스원’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즉, 현실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가족의 역사 속에 축적되어 온 수직적 자원/스트레스와 현세대에서 발생하는 자원/스트레스가 교차하면서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현세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규범적 스트레스(normative stressor)와 비규범적으로 발생하는 생활 사건(non-normative stressor)으로 나뉘게 된다. 이때 만성질환의 노부모 돌봄은 규범적 스트레스에 해당하게 되며, 이 스트레스에 대하여 수직적 자원/스트레스와 현세대에 만들어진 자원/스트레스가 같이 작동하면서 현재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본다. 즉, 다세대적인 (수직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을 경우,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고, 그 반대로 다세대적인 자원이 누적되어 있으면 스트레스에 대응이 쉽다.

‘수직적 스트레스원’은 가족의 역사, 태도, 기대, 가풍, 생활사, 태도, 규칙, 신화, 금기나 비밀, 낙인 등을 통해 세대 간 전수되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기능 패턴을 말한다(정문자, 정혜정, 이선희, 전영주, 2018). 예를 들어 전통적 가족주의에 기초한 자녀들의 노부모 돌봄 의식, 남아선호 사상, 장남의 부모 돌봄, 어머니/여성의 희생과 역척스러움, 진학, 결혼과 독립 과정에서의 경험 등이 여기에 포



[그림 1] 가족 체계 내의 수평적 스트레스원과 수직적 스트레스원

출처: Carter & McGoldrick(2000), p.22.

함될 수 있다. 이런 수직적 스트레스/자원은 주로 중년여성들의 원가족 경험으로 간주되며 이들의 정서와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질환을 가진 친정모 돌봄이라는 현실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다세대적 관점은 노모 돌봄이라는 어려움을 거뜬히 견뎌내는 기혼 여성들의 삶의 의미와 힘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중년 여성의 모녀 관계 경험을 내러티브 방법으로 탐구한 황은경(2016)은 중년 여성의 모녀간의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애에 대한 맥락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과거의 원가족 경험, 성장 배경, 교육 경험과 함께 자신의 직업 경험의 사회적·가족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적 고려의 틀로 이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다세대적 관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1. 내러티브 연구의 특성

내러티브 연구는 인간 경험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독특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된 경험(storied experience)을 연구 자료로 사용한다. 연구자는 내러티브 속에 담겨 있는 경험의 의미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분석하여 개인에게 발생된 사건들의 경험을 재조직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여 그 사건들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한다(천정웅, 2019).

내러티브를 탐구하는 방법은 J. Dewey(1938)의 경험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Dewey는 인간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맥락에서 활성화되는 지속성과 상호작용에 주목하였다(김성은, 2021; Clandinin, 2013). 지속성은 경험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인간은 시간상에서 어느 시점에 있든 그 시점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고, 그 경험은 미래의 경험을 형성한다고 본다(Clandinin & Connelly, 2007). 상호작용은 인간이 단독자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사회적 맥락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III. 연구방법

(Clandinin & Connelly, 2007).

이러한 경험에 대한 관점을 가진 내러티브 연구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경험된 현상을 기술, 설명함으로써 더 큰 이해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실시한다(홍영숙, 2020). 따라서 만성질환의 친정모를 돌보고 있는 신중년 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가 살아가고 교류하고 있는 특정한 맥락의 지속적/역사적이며 관계적/상호작용적인 실체를 탐색하고 묘사할 수 있는 내러티브 연구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경험의 지속성과 상호작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Clandinin과 Connelly는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의 공간으로 시간성, 사회성, 장소 세 가지를 분석 틀로 제시했다(김경희, 2020; 양숙희, 권재환, 2019). 시간성(Temporality)이란 과거-현재-미래라는 경험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성(Sociality)이란 내러티브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이며, 장소(Place)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생겨나고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 상호작용, 공간이라는 차원은 ‘과거지향, 미래지향, 내적지향, 외적지향’이라는 탐구의 방향성을 지닌다. 내적지향이란 내러티브를 탐구하며 참여자의 감정, 희망, 심미적 반응, 도덕적인 성향 같은 내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고, 외적지향이란 환경에 초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미래지향은 시간성(Temporality)을 의미하는 것이다. Clandinin과 Connelly(2007)는 경험을 경험하는 것 곧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경험을 이런 네 가지 방식에서 동시에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2. 연구 절차

연구자는 Clandinin과 Connelly(2007)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의 5단계 과정을 활용하여 내러티브 연구를 수행하였다. 내러티브 탐구 과정은 이야기 속으로(현장) 들어가기,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하기),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로 진행된다.

1)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이 단계는 연구의 목적과 동기를 생각하고 현장을 찾고, 본격적 자료 수집에 앞서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참여자와 연구 주제 및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관계를 맺는 단계로 현장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내러티브 연구에서 연구 동기는 연구자의 개인적 관심이나 경험에서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염지숙, 2003).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의 만성질환의 친정모 돌봄 경험은 연구자가 이미 연구 현장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연구자 자신의 내러티브를 작성하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주변의 친구,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소개하고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들을 접촉해보는 과정을 통해 연구목적에 맞는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택되었다. 첫째, 50~60대의 기혼 여성으로 남녀 형제가 모두 있고, 둘째, 슬하에 자녀가 있고 현재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셋째, 친정모의 만성질환은 발병이 최소 1년 이상 되어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참여자가 친정

모 돌봄의 일차적인 책임자일 것, 넷째, 연구의 목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자발적 동의를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의사 표현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

2) 이야기 공간에 존재하기

이 단계는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여 현장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연구에서 자료수집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내러티브 방법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자 자신과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더 넓은 맥락적 전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된다(Clandinin & Connelly, 2007). 이를 위해 면담은 참여자당 최소 1회 이상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관찰과 함께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은 2021년 7월~10월까지 각 연구참여자로 회기당 1시간 30분~2시간 정도로 3~4회기 이루어졌다. 면접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개방 질문에 자유롭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에는 원가족 경험, 성장 후 부모부양까지의 역사, 친정모 돌봄 경험과 그 의미, 친정모 돌봄으로 인한

원가족, 핵가족 및 모와의 관계 변화 등이 포함되었으나 그날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질문이 추가되었다. 심층 면담 초기에는 라포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후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교차로 수행하면서 면담의 내용과 방향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갔다.

3) 현장 텍스트로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는 현장 경험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것으로, 수집한 자료를 일컫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나 자료는 발견하거나 찾은 것이 아니라 현장 경험의 양상을 나타내기 위해 참여자와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Clandinin & Connelly, 2007)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텍스트로 주로 연구참여자와 심층 면담 자료, 현장일지 및 연구일지를 사용하였다. 특히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인터뷰 자료인 현장 텍스트를 들으며 텍스트화시켜 반복적으로 읽음으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냉담하게 관찰하기(Clandinin & Connelly, 2007)를 통하여 또 다른 전경을 발견함과 동시에 새로운 질문들을 얻어 낼 수 있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성명/ 나이	부	모	모질병	발병 (돌봄) 기간	모 동거 여부	형제 자매/ 본인 형제 순위	학력	결혼 기간	자녀	본인 직업	배우자 직업	배우자 형제/ 배우자 형제 순위
빛나 51세	사망	81세	척추 협착증	25년	비동거	2남4녀 5째	전문대	27년	2남	사무직	프로 그래머	1남2녀 2째
써니 64세	사망	99세	치매	2년	동거	2남3녀 2째	전문대	31년	1남	사무직	운송업	3남2녀 1째
보미 56세	87세 (요양원)	83세	뇌졸중	10년	비동거	1남2녀 1째	대졸	24년	1남 1여	교사	공무원	3남 1째

4) 현장 텍스트를 연구 텍스트로

경험에 대한 의미 구성하기는 수집된 현장 텍스트를 공식적인 연구 텍스트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내러티브를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연구의 핵심적인 과정이다(염지숙, 2003).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및 의미를 재 탐색하면서 연구자 스스로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연구참여자 각 개인의 개별성과 독특성에 주의하여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해 나갔다.

5) 연구 텍스트로 구성하기

이 단계는 연구의 마지막 단계로 연구참여자들에 의해 이야기된 경험을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현장 텍스트가 연구 텍스트로 변환되면서 연구물의 형식에 필요한 형식에 맞추어 주요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현장 텍스트를 쓰면서 의미 해석과 분석이 이루어지지만, 연구 텍스트 쓰기 단계에서 본격적인 자료 분석이 이루어진다. Clandinin과 Connelly(2007)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면담 녹음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현장 텍스트를 정독하면서 현장 텍스트에 나타난 시간적 차원과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위와 사건이 일어난 공간성의 3차원적 탐구 공간에서 분석하였다. 즉, 연구참여자들의 원가족 경험과 친정모 돌봄을 시작하게 되는 과정의 경험과 현재의 일상,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장소들을 연결하였다. 변화 경험에 특히 주목하였으며 중요한 문단은 나누어 분석하고 의미를 형성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주제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대안적 방법으로 은유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확보

연구의 엄격성을 갖추고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Clandinin과 Connelly (2007)의 내러티브 분석의 절차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연구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적 연구 방법론과 내러티브 연구 방법론을 별도의 집중워크숍들을 통해 공부하였으며, 자신의 내러티브를 작성하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둘째,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왜곡된 분석과 해석을 방지하고 진실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석에서의 다각도접근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초기 코딩 과정과 소주제 찾기, 범주화, 주제에 이름 붙이기, 글쓰기 등의 전 과정에 질적 연구로 여러 편의 논문을 출판한 경력이 있는 공동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였다. 셋째,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분석된 내용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검증(member checking) 과정을 거쳤다.

4.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름과 지명 등은 모두 가명과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참여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연구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에 관해 설명한 뒤 자발적 동의를 구했다. 또한 면담 시 민감하고 불편한 질문은 거부할 수 있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도 설명하였고, 녹취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한 이외의 여러 조치에 대해서는 S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사전 승인을 받은 바 있다[SMUIRB(C-2021-010)].

IV. 연구결과

1. 신중년 기혼 여성의 만성질환 친정모 돌봄 이야기

1) 빛나 이야기

(1) 무명용사의 독립과정

빛나는 51세(1970년생)로 9살 위 큰언니, 5살 위 오빠, 연년생인 둘째, 셋째 언니 그리고 빛나, 2살 아래 남동생으로 구성된 6남매 중 다섯째로 새마을 운동이 막 시작되었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빛나의 아버지는 2남 3녀의 장남으로 박식하고 현명하셨지만, 노름과 외도 등으로 가족을 돌보는 데 관심이 없으셨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과 농사일을 하셨으며 심지어 이웃 집에 품을 팔러 다니셨다.

할머니는 무섭기로 유명해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나신 분이다. 할머니는 집안의 모든 일을 당신 맘대로 정하여 심지어 큰고모를 대신해 아버지에게 대출을 받게 하셨다. 아버지는 고모의 빚으로 시달리게 되자 얼마 안 되는 전답을 팔아 빚을 갚았고 덕분에 가세는 점점 기울었다. 아버지는 빛나가 고3이 되던 해 병원 치료도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암으로 돌아가셨다. 의료보험이 미비하던 80년대 후반 농촌지역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빛나는 바쁜 엄마를 늘 그리워했지만, 엄마의 품은 언제나 남동생 차지였다. 빛나의 꿈은 수학 교사였으나 엄마는 남동생을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이유로 빛나를 상고에 진학시켰다. 위의 언니를 대학 보낸 것과 비교하면 빛나의 상고 진학은 집에서 빛나의 존재감이 얼마나 약했는지를 보여준다. 빛나는 상고를 졸업함과 동시에 서울에 있는 ○○증권회사에 취직을 하여 능력을 인정받았고, 꿈에 그리던 야간 대학에도 진학하였다. 이 무렵 가족은 모두 서울로 이사하였고 엄마는 이모의 식당에서 일하셨지만, 많이 힘들어하셨다. 일찌감치 결혼한 큰언니 아래의 4남매는 4~5개월 간격으로 결혼을 하여 집을 떠났고, 남동생까지 군에 입대하면서 친정에는 엄마만 남게 되었다. 빛나는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결혼 후에도 엄마 곁에서 보살핌을 받았다.

(2) 얹혀 버린 엄마와 딸의 삶

엄마가 식당 일을 점점 힘들어하자 언니들은 묘안을 짜내 빛나가 형부 회사의 경리를 맡고, 엄마는 식당 일 대신 빛나의 아이를 키워주고, 빛나가 엄마에게 수고비를 드리기로 하였다. 빛나가 두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엄마는 큰 수술을 받으셨다. 산후조리를 해야 했지만, 엄마 병간호는 빛나의 몫이었고 엄마가 입원해 계신 동안 빛나의 어린 아기들이 이 집 저 집에 맡겨졌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을 때 큰 형부는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 과도하게 사업 확장을 하였으나 회복불능 상태가 되었다. 형제들은 십시일반으로 큰언니를 도왔다. 형부에게 가장 큰돈을 빌려준 빛나에게는 그 일이 아직까지 큰 상처로 남아있다.

빛나는 두 아들을 키워주고 살림을 도와주는 엄마를 위해 빛나 집에 엄마 방을 마련해 드렸다. 7년 후 빛나와 오빠는 같은 아파

트 단지에 분양을 받아 이사하면서 빛나 집 대신 오빠 집에 방을 마련해 드렸다. 그러나 엄마는 빛나 집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당신의 영역이 빼앗겼다는 생각에 몇 달 동안 빛나와 말도 안 섞으셨다. 빛나는 엄마가 본인의 두 아이를 키워주셨고 살림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크나, 엄마 뒤치다꺼리를 자신만이 “독박”으로 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 화가 났다.

빛나는 엄마 돌봄의 책임은 오빠이고, 자신은 오빠의 협력자라고 늘 생각한다. 때론 엄마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남동생이 가족과 엄마에게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태도에 빛나는 억울한 마음이 든다.

(3) 엄마에겐 내가 제일 편해

빛나의 엄마는 처음 7년간 빛나의 집에서 생활하시다가 그 이후로는 14년째 매일 출퇴근을 하신다. 엄마는 건강상 빛나의 살림을 더는 도울 수 없으시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아침 빛나네 집에 오신다. 며느리랑 함께 있는 것보다는, 빛나의 집이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빛나는 어린 시절 가족 안에서 존재감이 없었으나 편찮으신 엄마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가족 내에서 목소리가 커졌다. 형제들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자신만의 방법으로 엄마를 돌보고 있으나 가족의 중심은 언제나 빛나이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형제들의 인정은 빛나에게 자존감을 주고 이것은 엄마 돌봄의 힘의 원천이 된다.

엄마는 3~4년 전부터 걸음걸이가 불편해지면서 많이 다치셔 재활 병원 신세까지 지셨다. 이럴 때면 형제들은 당연히 빛나가 엄마의 병간호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빛나도 엄마처럼

가족의 화목을 위해 희생하지만,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형제들의 태도가 빛나를 힘들게 한다. 그럴 때면 빛나는 자신이 엄마가 제일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사람이며 엄마에게 가장 많은 보살핌을 받았고 형제 중 여건이 가장 좋은 자신이 엄마를 당연히 돌보아야 한다고 자신을 토닥인다. 또한 형제 중에 빛나 부부만이 교회에 다니기에 신앙인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0년 넘게 먹고 있는 솜씨 좋은 엄마의 음식은 빛나에게 분명히 엄마의 사랑이고 감사함의 대상이지만, 넘을 수 없는 산이요, 절벽이며, 스트레스의 주원인이다. 빛나가 서툴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면 엄마는 손주들에게 당신의 것과 빛나의 음식을 비교하며, 당신 음식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시며 때로는 타박하신다. 팔순이 지난 엄마는 지금도 빛나에게만은 당신의 주도권을, 특히 살림에서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신다.

빛나의 남편도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에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한다. 몇 년 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남편이 엄마를 업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간 적도 있다. 빛나의 25살, 22살 두 아들은 손주들 중에 할머니를 제일 잘 챙겨드린다. 시댁 일을 스스로 잘 챙기는 남편이 무척 고맙지만, 가끔은 남편이 장모님 일에는 무관심하고 시부모님 일에만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든다. 시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걱정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만,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엄마가 편찮으시면 손과 발이 먼저 자동으로 반응하지만, 시부모님이 편찮으시면 계산을 먼저하고 나서 몸이 반응한다.

2) 씨니 이야기

(1) 나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씨니

씨니의 엄마는 99세로, 100세를 바라보신다. 엄마는 2남 4녀의 넷째 딸로 일제 강점기 말, 일본 유학까지 하신 지식인이며, 외가는 선비 집안으로 명문가이다. 씨니의 아버지는 유기 장사로 큰돈을 번 땅 부잣집 2남 2녀의 장남이다. 아버지는 변변한 직업 없이,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늘 떠돌아다니셨다. 아버지는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였고 읍내에 판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어찌다 집에 오시면 살림살이를 때려부쉬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씨니의 가슴속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분노만 자리 잡게 했다. 반면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집으로 들어와 할머니 장례를 심지어 3년 상으로 치르셨다.

씨니는 현재 64세(1957년생), 2남 3녀의 둘째로 6살 위의 언니, 2살 아래 쌍둥이 남동생, 4살 아래 막내 여동생이 있다. 어릴 때부터 수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 도내 주산대회를 싹쓸이하는 주산 왕이었으며, 골목대장으로 동네에서 덩치 큰 남자애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여장부였다. 60년대 초중반의 젠더관에 비추어볼 때 이런 씨니의 모습은 매우 파격적이었을 것이다.

씨니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엄마는 자식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키기 위해 5남매를 데리고 상경했다. 엄마는 서울 변두리에 단칸방을 겨우 마련하고 멸치와 소금을 손수레에 싣고 팔러 다니셨다. 하지만 김칫거리조차 살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해 질 무렵 시장 한쪽에 버려진 배추 껍질을 모아 김치를 담그셨다. 어느 날 아버지는 서울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오셨다가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

가셨다. 그러나 형제 중 누구도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

씨니는 교대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엄마는 쌍둥이 남동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씨니의 대학 진학을 포기시키셨다. 씨니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 자살시도까지 했다. 씨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하여 탁월한 산수 능력을 발휘하여 여성 컴퓨터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회사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직장 상사의 배려로 야간대학에 진학하였고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씨니의 언니는 전화 교환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미국으로 떠났다. 쌍둥이 남동생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내로라하는 직장에 취직한 후 1~2년이 지나 결혼을 하였고 막내 여동생은 수녀원에 입회하여 집을 떠났다. 이후 집에는 엄마와 씨니만 남았다.

(2) 좌충우돌 삶 속에서 이어온 시모 돌봄과 친정모 지원

씨니의 남편은 67세(1954년생)이며 3남 2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시아버지는 건축자재 사업으로 큰 이윤을 남겼으나 남편이 고1 때 교통사고로 누워 계시다 3년 후 돌아가셨다. 이후 시어머니는 잘못된 빚보증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도와 동생들 뒷바라지와 아버지 병간호를 하는 등 실제적 가장 역할을 하였다.

씨니는 선배의 소개로 35살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났다(1992년). 남편은 무책임한 아버지와는 달리 가족을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할 것 같이 들통났다.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표를 내고 트럭 한 대를 사서 이삿짐을 날랐다. 자존심이 상한 씨니는 이 일을 계기로 남편과 비공식적

별거를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씨니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정성껏 돌보아 드렸다. 이것은 남편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족 중 누구도 시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조차 씨니의 힘들음을 알아주지 않아 서운하고 힘들었다. 시어머니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커지자 기도를 하였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시어머니를 예수님 대하듯 정성스럽게 돌보아 드렸다.

와병 중이신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씨니는 친정엄마에게 5살짜리 아들을 맡겼다. 일흔이 넘은 엄마가 손자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불평·불만 없이 손주를 사랑으로 건강하게 키워주셨다.

씨니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면서 결혼 후 친정모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90년대 초반의 결혼 풍속에서 친정모 돌봄에 대한 각서를 받은 것은 특별한 것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이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 씨니가 남편에게 이런 각서를 받은 것은 엄마가 한 여자로서 너무 가여운 삶을 사셨기에 경제적 지원이라도 끝까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씨니는 엄마에게 필요한 모든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3) 돌봄이 가져다준 삶의 새로운 의미

언제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시던 엄마가 자꾸 냄비를 태우기 시작하셨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셨다. 처음에는 가벼운 실수를

하셨으나 점차 심각해지셔서 욕을 하시고 계절이나 날씨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며, 동네를 몇 시간씩 헤매고 다니신다. 심지어 길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집으로 가지고 오셔서 집안을 음식물 썩은 냄새로 진동하게 만들어 버렸다. 남의 집 대문을 두드려 이웃집의 원성을 샀고, 요양보호사와 가족을 때리기도 하신다. 5명의 형제 중 언니는 미국에, 첫째 남동생은 집안 행사에만 겨우, 둘째 남동생은 사업이 망하고 발길 끊은 지 오래고, 막내 여동생은 수녀원에, 결국 엄마 옆에는 씨니 밖에 없었다. 엄마를 씨니의 집에서 돌보아 드리려고 했으나 엄마가 씨니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셔서 할 수 없이 두 집 살림을 시작하였다. 엄마를 모시면서 가장 힘든 것은 가족들의 무관심과 몰이해, 냉랭함이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 선물 같은 마음이 찾아왔다. 부모님의 삶이 어떠했던 나를 낳아주셨고 생명을 주신 귀한 분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가슴속의 분노가 무너지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

말수가 적은 남편은 남 앞에서 아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즘은 아내가 엄마를 돌보느라 애쓴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씨니의 엄마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남편의 경제적 지원 및 배려 덕분에 엄마를 지금껏 돌보아 드릴 수 있었다. 아들은 매일 밤 할머니 집으로 출근하는 엄마를 위해 차로 데려다준다.

언니의 제안으로 지난 8월부터 엄마는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잘 적응하시며 즐겁게 다니신다. 아침에 엄마를 센터에 보내드리고 나서 집안일과 개인적 일을 처리하고 밤이 되면 다시 엄마 집으로 향한다. 엄마가 데이케어 센터에 가시기 전에는 온종일

돌보아 드려야 했기에 지금이 훨씬 수월하다.

써니는 올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경로우대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예정이었다. 남동생들 때문에 포기한 대학에 가는 것은 꿈에 그리던 일이지만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기에 진학을 포기하였다.

써니의 형제들 및 주위 사람들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라고 한다. 하루하루 엄마의 걸음이 무거워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요즘은 길에서 소변 실수까지 하신다. 만일 엄마가 더 편찮아지셔서 거동을 못 하게 되시면 써니의 집으로 모시고 갈 계획이다. 가여운 엄마를 홀로 지내게 하고 싶지 않다. 하늘이 허락해주신 시간까지 엄마와 함께 잘 지내고 싶다.

3) 보미 이야기

(1) 부당한 환경을 극복한 모녀 연대기

현재 56세(1965년생)인 보미의 아버지는 87세(1934년생)로 8남 2녀 중 일곱째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뚜렷한 직업 없이 리어커 장사를 하시다가 보일러공이 되었다. 보미의 엄마는 올해 83세로 1남 4녀의 몰락한 명문가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러나 외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 엄마는 특별한 직업은 없었지만 탁월한 수완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하셨다.

보미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선생님이나 친구 부모님들로부터 차별을 받았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과격해져 엄마에게 언어폭력을 가했다. 이럴 때 보미는 엄마의 지원군이 되어 아버지를 중재하였고, 엄마는 셋방살이 시절 주인집과 맞닥뜨리는 일이 없을만한 방을 구해, 주인집 눈치를 보지 않게 해주

었다. 보미가 대입에 떨어져 좌절하고 있을 때, 엄마는 보미를 재수학원에 등록시켰다. 아버지는 재수하는 보미를 비웃었다. 보미는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도 싫었지만, 엄마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는 보미 가슴에 상처로 남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정서적 친밀감은 없고 형식적이며 의무적 관계만이 남았다.

교직은 보미의 적성과 잘 맞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이 되었다.

(2)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준 모녀

보미의 동생들은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특히 남동생은 이직과 사업실패를 반복하였다. 엄마는 궁여지책으로 당신 소유 건물에 남동생 가게를 차려주었다. 아버지와 올케 사이에 갈등이 생겨 올케는 시댁에 발길을 끊었다. 올케에게 서운함이 있으나 보미에게도 시댁이 편하지 않기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올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보미는 36세(2001년)의 늦은 나이에 동생들이 모두 결혼을 한 후 결혼을 하였다. 남편은 3형제의 장남으로 시부모님은 학벌과 교양은 겸비하셨으나 경제력이 없어 자식들의 도움 받으신다. 가끔 시부모님이 보미와 친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셔서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다. 신혼 초까지만 해도 엄마와 남편과의 사이가 좋았으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주식에만 매달려 큰 손해를 보는 등 불성실한 생활 태도를 보이면서 엄마와 갈등이 생겼다.

보미는 아이들이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 날이면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을 하였다. 보미는 친정과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엄마의 도움으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교직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대신 엄마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손과 발이 되어 드렸다.

(3) 딸의 삶에 순응하다

엄마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으나 천만다행으로 후유증 없이 지내고 계시지만, 생활 치매가 생기셨다. 반찬 뚜껑을 짝 맞추어 덮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 등의 일상생활 정리 정돈이 안 돼서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고, 집안에 벌레가 발생하는 등 타인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1년 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아버지는 순간 귀찮은 일이 시작됨을 직감하였다. 아버지가 1년 넘게 병원에 계시는 동안 주중에는 간병인이 주말에는 보미가 대소변을 받아 내는 등 병간호를 했다. 이때 보미는 학교일, 육아, 집안일, 아버지 병간호 등 24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사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 중 형편이 가장 좋은 보미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였다.

부모님은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면 맏이인 보미와 상의하셨다. 특히 법률적 문제, 세법 문제, 관공서 일과 같은 행정적 일은 언제나 보미의 몫이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남동생은 주말이 되면 엄마 집에 와서 밀반찬을 해 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린다. 엄마는 보미보다 주말에만 오는 남동생을 더 기다리신다. 여동생은 엄마에게 옷이나 소품을 사 드리는 담당이다.

부모님 돌봄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두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보미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최근 류머티즘으로 엄마 집 살림을 해주는 것이 힘들어 대신 살림

을 해주는 우렁각시가 있었으면 하기도 한다.

보미는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나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으나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모실 생각은 없다. 보미가 남편 도움 없이 혼자 친정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남편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미의 남은 인생의 목표는 엄마처럼 자식에게 의지해서 살지 않는 것이다.

2. 신중년 기혼 여성의 만성질환 친정모 돌봄 경험의 의미

여기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친정모를 돌보는 3명의 신중년 기혼 여성들의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에 흐르는 경험의 의미를 발견해 보고자 한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렌즈의 틀에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의미를 가두어버리거나 왜곡시켜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가족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격변했던 시대적 환경’이라는 두 축을 나란히 놓고 그 위에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자취를 올려놓고 그들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보았다.

연구자는 Clandinin &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의 지향점인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 안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을 시간성, 사회성, 장소라는 다각도의 관점을 통해 왜곡 없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려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해 나가며 출렁이는 삶의 여정을 나아가고 자기 삶의 목표를 향해 지금도 충실히 나아가고 있다. 그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개별적 차별화되어 구현되고 있는 경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가여운 엄마에 대한 보상

참여자들은 자식을 양육하면서 희생하였던 친정모에 대한 보상에서 돌봄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는 1960년대 농촌지역에서의 가난한 가족, 유년 시절 가부장적이면서도 가족들에게 무책임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 온 친정모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존재했다. 가난과 다자녀양육, 농촌지역의 가부장적 남편과 시댁이라는 환경 속에서 60년대 어머니들이 강인한 생존력으로 자녀들을 양육해나갔던 모습이 연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돈이 없어서 김치거리를 낮에 못 사러 갔어요. 옛날에 시장에 가보면 우거지 같은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런 것을 골라다가 김치를 해주셨어요. 정상적인 배추 거리를 한 번도 못 샀대요. 그것을 골라다가 김치를 해서 먹이고 우리들 가르치려고 하신 거죠. (씨니와 첫 번째 만남, 2021년 7월 14일).

2) 돌봄의 교환으로 얹히는 딸과 엄마의 삶

친정모와의 관계의 역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된 돌봄 경험의 의미는 자신의 아이를 키워준 친정모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청년기인 70년대 말~80년대에는 이전 세대에 비해 여성들의 대학 진학과 결혼 후 직장생활의 기회가 확대되어 여성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유능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경제 활황은 형편상 대학 진학을 못하고 상고를 졸업한 여성들이 회사원으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공공 보육서비스

등이 잘 구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친정모들이 딸의 육아에 동원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곤 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친정모를 통한 육아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딸들은 물질적 보상 등을 해왔고, 이후 연로하여 아픈 모를 위해 돌봄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신중년기 코호트 연구참여자들은 이들의 자녀양육기 기간 한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가족적 배경으로 인해 친정모와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력적 관계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서로의 돌봄의 삶이 얹히는 계기가 되었다.

엄마는 남동생 학비를 내야 되고, 저는 아이를 키워야 해서 두루두루 협업한 것이었죠. 상여금을 받으면 엄마에게도 상여금 반을 드리고 제가 세금을 냈으니까 오히려 제가 덜 받았죠. 남동생 학비를 마련해야 해 제가 그 총대를 메기도 했네요 (빛나와 두 번째 만남, 2021년 7월 19일).

3) 엄마 마음은 여전히 아들을 향해

연구참여자의 엄마들은 전통적 규범의 틀 아래 시부모를 모셨던 1960년대~70년대에 걸친 부계중심의 원가족 경험에 비추어 자연스레 아들이 자신의 노후를 보살필 것을 기대하며 아들에게 특별한 지원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강인한 엄마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자란 유약한 남자 형제와 엄마를 닮아 강인한 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유약한 아들들은 엄마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엄마는 유능한 딸의 돌봄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남동생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반찬이라도 해주고 가니까 엄마는 당신이 좋아하는 아들이 챙겨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나 봐요. 동생 오는 것을 기다리고 좋아하시고 엄마의 근심거리도 조금 줄여줘요. 엄마는 애가 밥은 제대로 먹는지 애들 학비는 제대로 하는지. 맨날 남동생 걱정만 해요. 제 동생 나이가 이제 54인데도 말이에요 (보미와 두 번째 만남, 2021년 7월 22일).

4) 신앙으로 극복한 위기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으로 청소년기 이전부터 성당 또는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엄마의 질병·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신앙의 힘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신앙 안에서 돌봄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분노했었는데 용서·화해 기도하면서 없어졌어요. 우리 아버지랑 화해한 것은 1~2년밖에 안 돼요. 어느 날 ‘엄마·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든 순간 이 가슴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저는 하느님의 축복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써니와 두 번째 만남, 2021년 7월 18일).

5) 돌봄을 통해 얻은 존재감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여아로서, 또한 형제 서열상 성장기인 1960~1970년대에 원가족 관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경험으로 강한 인정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이들이 친정모 돌봄을 통해 받게 되는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로

부터 인정욕구가 충족되었고, 그들의 능력·경제력이 돌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교사라서 약간 시간이 여유가 있고, 형제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버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여동생이 가끔 난데없이 나한테 택배로 옷이나 약 같은 것을 사서 보내기도 해요. 고맙다는 표시로요. 남동생은 별말 없어요. 남동생은 아마 부담스럽기도 하고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나가는 소리로 조카들한테 “너희 고모처럼만 하면 딸도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더라고요 (보미와 세 번째 만남, 2021년 10월 20일).

6) 부모 돌봄은 나에게서 끝

신중년은 부모를 마지막까지 돌봐드리나 자신은 노후에 자녀들의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잘 인식하고 있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려 노력한다.

어릴 적에는 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할머니처럼 관여하거나 효를 강요하지 말아야지 했어요. 우린 안타까운 세대예요. 부모님 봉양하고 돌봄 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데, 한편으로 ‘나는 내 자식들한테 의지할 수가 없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불편해요. 자식한테 100% 다 주지 말고 나의 노후를 위해 집이든 여유 자금이든 연금이든 하나는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빛나와 세 번째 만남, 2021년 7월 26일).

어요. (씨니와 두 번째 만남, 2021년 7월 18일).

7) 여전히 남아 있는 장남의 존재감

유교 문화 중심의 부계사회에서 장남은 집안의 가계를 상속하고 제사를 모시며 부모를 돌봄 하는 역할을 하였다. 빛나와 씨니의 아버지는 장례와 제사를 주관하는 등 형식적이라도 장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다세대적 경험을 바탕으로 장남이 형식적 돌봄이라도 돌봄에 참여할 경우에 형제들의 협력과 결속력이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오빠는 새언니에게 엄마 모시는 데 있어서 타협할 여지를 비추지 않아요. 고마운 일이지요. 오빠의 희생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100% 다 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열심히 같이해요. 상황에 따라 어떨 때는 누가 더 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평상시에 엄마 돌보아 드리다가 도움이 필요해지면 언니들도 나 몰라라 하진 않아요. 오빠랑 새언니가 착해서 중심을 잘 잡아줘요. (빛나와 세 번째 만남, 2021년 7월 26일).

반면 씨니의 경험에서와 같이 장남인 동생이 엄마 돌봄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회피하는 경우 형제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짐을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남동생이 엄마를 요양원 보낸다고 그러기에 제가 모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잘난 척하지 말래요. 그 소리에는 정이 뚝 떨어졌어요. 전 그때부터 동생 없

8) 남편 지원의 영향력

병든 엄마를 모시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빛나와 씨니 같이 남편들의 지지와 협조가 있을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의 지지는 가사 분담 및 경제적 지원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 더욱 협조적임을 알 수 있었다.

남편이요 ‘저 여자는 착한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제적인 것은 다 지원해 줘요. 요양원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게 되면 본인이 비용 부담한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씨니와 두 번째 만남, 2021년 7월 18일).

부부관계 및 장서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배우자는 장모 모시는 일에 비협조적이고 무관심하여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시부모 돌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남편이랑 엄마랑 대화를 거의 안 해요. 명절 때 가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애들 어렸을 때만 해도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애들이 좀 큰 다음에는 앉으면 빨리 밥 먹고 가자고 해요. 저는 엄마랑 같이 사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아마 남편이랑 엄마랑 둘 다 스트레스 받을 걸요. 저도 물론이고요. (보미와 두 번째 만남, 2021년 7월 18일).

9) 시부모 돌봄과 친정모 돌봄 차이의

복잡성

친정엄마와 딸의 정서적 친밀감은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대하는 마음과는 차이가 나타났다. 빛나와 보미의 친정모 돌봄은 정서적 친밀감에 의한 돌봄의 성격이 강하나, 시부모 돌봄은 며느리의 규범적 도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향후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부모님 돌봄의 의지는 매우 적으며, 부부는 각자의 부모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시부모님까지 돌봐드려야 한다면 우린 찢어져야 해요. 남편은 시아버님 모시러 가고, 나는 우리 엄마 모셔야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만약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요. (빛나와 네 번째 만남, 2021년 10월 7일).

전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없어요. 전에 우리 아버지 편찮으셨을 때 제가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싫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보미와 세 번째 만남, 2021년 10월 20일).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친정모 돌봄을 하고 있는 신중년 기혼 여성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흐르는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돌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역사적 맥락과 코호트적 맥락을 바탕으로 그들의 독특한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신중년 기혼 여성의 만성질환 친정모 돌봄 경험의 의미를 코호트 특성과 원가족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코호트 경험과 원가족 경험은 함께 어우러져 그들의 삶의 궤적을 만들어 내었고, 이러한 궤적들은 이들이 만성질환 친정모를 돌보는 경험을 받아들이고 해석해 내는데 다면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Cater와 McGoldrick(2000)의 다세대적 가족스트레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경험들은 만성질환의 친정모 돌봄과 자녀 돌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발달기적 특성을 가진 신중년 여성에게 때로는 자원, 때로는 스트레스원이 되는 다세대적 유산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이들의 코호트 경험, 원가족 경험, 현가족에서의 가족 발달적 경험이 친정 부모 돌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여자들의 친정모 돌봄에 활용되는 다세대적 자원으로는 가족을 위하여 헌신한 엄마에 대한 보상심리, 엄마를 통해 경험한 강인한 여성상, 돌봄의 주체는 여성이라는 인식 등을 찾아낼 수 있었다. 원가족 경험에서 전수되어 이들에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험으로는 유약한 남성상, 부계 중심 남아선호, 딸로서의 무존재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신중년 여성들의 수직적 스트레스원인 원가족 경험은 그들의 코호트적 특성과 접목되어 원가족의 경험이 그대로 발현되거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 친정모 돌봄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1960~70년대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낸 신중년은 농촌·가난·부계중심주의라는 코호트 경험과 자식을 위해 헌신한 친정모에 대한 원가족 경험이 결합하여 그것이 현재 친정모 돌봄 자원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역경 속에서 가족을 지켜낸 친정모의 모습은 이들에게 내면화되어 이들의 삶의 태도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조부모를 모시던 부모의 모습에 대한 원가족 경험이 어우러져 친정모 돌봄을 당연한 도리로 인식하였으며, 여성이 돌봄의 주체라는 인식을 통해 자신의 친정모 돌봄을 자연스레 받아들이고 있다. 어머니로부터 전해 받은 강인한 여성상은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 시기와 맞물리면서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주었고, 이것이 참여자들의 친정모 돌봄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

반면 원가족 경험 중 일부는 코호트적 특성과 접목하여 친정모 돌봄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년 시절 유약했던 아버지에게 대한 경험은 이들의 남자 형제들에게 전수되면서 오늘날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결합하여 남자 형제들의 유약함과 부모형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져 신중년 여성의 친정모 돌봄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다. 친정모는 딸의 돌봄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딸을 경시하고 아들이 오기만을 바라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것이 이들의 스트레스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더불어 원가족에서 경험하였던 무존재감은 친정모 돌봄 과정에서 주위의 긍정적 피드백이 강한 동기가 되거나, 부정적 피드백이 있는 경우 강한 스트레스로 경험되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생식가족발달 역사에서 만들

어진 자원과 스트레스들은 이들의 수직적 스트레스와 교차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경험을 만들어 내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사회에서의 지위, 경제력 및 남편과 자녀들의 지지와 협조는 친정모 돌봄 자원으로 활용되었으나, 자신의 건강 문제, 아이들의 학업 문제를 비롯한 자녀 양육, 주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남편과의 갈등은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신중년 여성들의 친정모 돌봄 경험의 의미는 현재 시점에서 그들의 행동만을 관찰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코호트적 맥락과 가족적 맥락을 바탕으로 그들의 원가족 경험에 이어지는 수직적, 수평적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친정모 돌봄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건디어 내는 그들의 돌봄의 의미와 삶의 깊이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도 만성질환의 친정모 돌봄은 지금껏 경험할 수 없었던 어렵고 힘든 경험이지만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현재를 경험하고 또 미래를 전망하면서 경험을 소화하고, 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1) 연구의 의의

여기서는 연구의 의의를 사회적, 실제적, 개인적 차원의 의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부모 돌봄의 주체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신중년 기혼 여성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향후 노부모 돌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할 기혼 딸의 노부모 돌봄 현상을 내부자의 시각에서 맥락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그 현상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사회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신중년 기혼 딸들의 노부모 돌봄 의식은 전통적 효 사상과 함께 노부모들의 고단했던 삶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려는 경향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들은 노부모 돌봄 이외에도 아내와 엄마로서의 가족 역할, 그리고 직업 역할 등의 다중역할의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신중년 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에 부여하는 긍정적 의미와 병행되는 이들의 돌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연구참여자들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부모 돌봄의 스트레스원이자 가장 큰 지지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이들이 의존적인 친정모와 만들어가는 관계의 의미는 이들의 긴 인생 경험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이야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들이 노부모 돌봄 딸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이나 가족상담 등의 실천영역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천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친정모와 딸 사이의 유대감, 부양자인 딸로서 느끼는 미묘한 서운함, 질환을 가진 모 돌봄 역할이 할당되는 맥락과 돌봄을 둘러싼 형제자매 관계, 핵가족의 지지가 돌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등 친정모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양상들은 유사 상황을 경험하는 내담가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돌봄을 하는 딸 뿐 아니라 관련된 가족이 상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도 시사된다. 또한 친정모 돌봄 중년 기혼여성들을 상담할 때 내러티브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상담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적극

적 이야기 구성이 내담자의 현재 경험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최연정, 조은숙, 2021)이다. 이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 서술할 개인적 의의와 연결된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가진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참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 자신의 친정모 돌봄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참여자들 또한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친정모 돌봄을 경험하고 있는 자기 인생을 성찰하고 모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삶을 통합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재구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개인적인 의의를 가진다.

2) 제한점

본 연구는 이야기의 풍부함을 담아내는 내러티브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나, 참여자 당 면담 분량이 3~4회기에 1시간 30분~2시간 정도로 제한적으로 할애되어 각 참여자의 풍부한 이야기를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3명인 것은 내러티브 방법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자체로 제한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각 참여자의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야겠다. 첫째, 공고롭게도 세 명의 연구참여자는 모두 유년 시절의 가난과 가족단위의 이혼향도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즉, 이들은 가난한 농촌 가족에서의 남아 선호사상의 차별 속에서 강인한 여성으로 생존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도시 중산층 가족에서 성장한 경우는 신중년 코호트 여성이라 하더라도

다른 내러티브를 가졌을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모두 취업 여성으로 자신의 아이를 친정모가 돌봐준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친정모를 보살필 만한 발언권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친정모 돌봄 경험은 전업주부의 경우와는 사뭇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더욱 다양한 원가족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연구참여자들, 그리고 전업주부인 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친정부모 돌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요양 시설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신중년 딸의 돌봄 경험에 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향후 요양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경우도 있었는데, 부모님을 요양 시설에 모시고 있는 신중년 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7).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67633>
- 고용노동부 (20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중년 지원.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339>
- 김경희 (2020).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살해당한 성인 여성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6(4), 1-36.
- 김선숙 (2019). 노년기 비혼여성의 노부모 돌봄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은. (2021). 도박중독자 아내의 공동의존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가족과 가족치료*, 29(3), 655-680.
- 김영하 (2021). 가족의 노인 돌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아내, 며느리, 딸의 돌봄 경험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정, 최유호 (2007). 성인자녀의 부모부양동에 관한 연구: 성별 및 부양자-노부모 관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3), 313-334.
- 류민영 (2016). 중년기 기혼부부의 어머니와의 세대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현아, 차승은 (2020). 가족의 노인 돌봄 경험과 딜레마: 누가 돌보고 어디에서 돌봐야 하는가. *가족과 문화*, 32(1), 102-131.
- 박종환, 신승옥 (2018). 중년기 여성의 친부모 부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611-623.
- 박진숙 (2019). 비혼 중년여성의 노환부모와의 동거돌봄 경험 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병숙, 장선주 (1990).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교류연구: 아들동거노인과 딸 동거노인의 비교.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8(3), 171-186.
- 송다영 (2004). 부양의식을 통해 본 노인부양지원정책 방향성: 기혼 여성의 부양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9(0), 207-234.
- 양숙희, 권재환 (2019). 가톨릭 수도자 삶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5(1), 203-236.
- 양옥경 (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의식 연구: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1(0), 229-256.
- 양지훈, 권미애 (2018). 인천시 베이비부머 실태 및 욕구조사.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https://www.inlife.or.kr/bbs/board.do?bbsid=report&dat_seq=24
- 염지숙 (2003). 교육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이금남 (2001). 기혼 딸과 친정어머니의 친밀

- 감 및 부양의식.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동옥 (2011). 여성의 노부모 보살핌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1(1), 83-122.
- 이여봉 (2011). 부양지원과 세대 갈등: 딸과 친정부모 그리고 며느리와 시부모. *가족과 문화*, 23(1), 41-76.
- 이영분, 김유숙, 신영화, 전해성, 최선령 (2020).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 서울: 학지사.
- 이원준, 신성자 (2011). 중년남성들의 노부모와의 친밀성과 수발효능감이 노부모 수발헌신에 미치는 영향: 부모건강집단과 부모병역집단 간의 다집단분석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10), 15-27.
- 이현지 (2007). 만성질환 노인을 돌보는 가족 부양자의 건강관련행동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9(0), 29-53.
- 전혜성 (2016). 여성의 가족주의가치관 및 부모친밀감이 노부모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4(5), 501-506.
- 정문자, 정혜정, 이선훈, 전영주 (2018). 가족치료의 이해 3판. 서울: 학지사
- 진화영 (2020). 신중년의 가족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부양관계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87, 21-34.
- 차성란 (2014). 가족돌봄기능의 수행과 세대갈등 가능성에 대한 고찰.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18(4), 111-133.
- 천정웅 (2019). 질적연구방법 총론. 경기: 양서원.
- 최연정, 조은숙 (2021). 온라인 이야기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29(4), 787-811.
- 최유나 (2018). 장녀인 중장년 기혼 여성이 만성질환 친정어머니를 돌본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 (2015). 1·2차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희경 (2012). 노부모를 돌보는 아들의 돌봄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55(3), 7-31.
- 최희진, 한경혜 (2017). 세대 간 지원교환의 장기적·단기적 호혜성: 아들과 딸의 비교. *한국노년학*, 37(1), 83-102.
-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3/index.board?bmode=read&bSeq=&aSeq=36336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통계청 (2019). 한국의 사회동향 2019.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3/index.board?bmode=read&aSeq=379502&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28639870007080509&rs=/assist/synap/preview
- 홍영숙 (2020). 내러티브 논문작성의 실제.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3), 7-28.
- 황은경 (2016). 중년기 딸의 어머니와의 정서적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Carter, E. A., & McGoldrick, M. (1980).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Gardener Press.
- Carter, E. A., & McGoldrick, M. (2000). 가족생활주기와 치료적 개입 (정문자 역, 원제: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저 1989년 발행).
- Clandinin, D. J. (2013).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Walnut Creek, CA: Left Coast Press, Inc.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7). 내러티브 탐구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공역, 원제: *Narrative Inquiry*). 서울: 교육과학사. (원저 2004년 발행).
-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NY: Macmillan Company.

□ 논문접수일 : 2022년 01월 31일
□ 심사시작일 : 2022년 02월 18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03월 03일

A Study on the Narratives of “New Mid-life” Married Women Who Care for Their Mothers with Chronic Disease

Jisoo Lee

(Dept. of Family Counseling & Therapy
Sangmyung University)

Eunsuk Cho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narratives of new mid-life married women providing elderly care to their mothers with chronic illness in South Korea.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three middle-aged married women providing care to their mothers having chronic illness. Data were gathered through 3-4 in-depth interviews with each participant during July to October, 2021.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procedures proposed by Clandinin and Connelly (2004). **Results:** Participants' experiences of family of origin when mingled with their cohort experiences act as resources or stressors in their care experiences. **Conclusions:** This study explored the experiences of the middle-aged daughters who are providing elderly care for their mother, in the context of family of origin and cohort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resources for clinical intervention for daughters experiencing elderly care for their parents.

Keywords: *new mid-life women, elder care, daughter, chronic disease, narrative*